

터였다. 그러다 추상으로 가면서 자연스레 그리지 않게 되었는데 지금 화풍으로 바뀌면서부터 다시 새를 그리게 되었다. 제자들과 베네치아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친구 머리 위에 새가 앉은 걸 보고 그림이 되겠다 싶어서 그렸다. 그 그림을 2006년 전시회 때 크게 그려서 걸었는데 그 제자가 와서 보더니 “선생님 저 머리가 제 머리 아니에요? 한 가지 비밀 더 가르쳐드릴까요? 실은 비둘기가 날아오게 하려고 제 머리 위에 비둘기 모이를 얹어놨었어요.” 하더라. 엉뚱하다. 그런 엉뚱함, 순정(純正)함이 예술을 만든다.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조각하는 친구데, 최종태 선생님 대를 이어 맡음 훌륭한 아인데……” 말을 잊지 못하는 박 화백, 눈시울이 금세 붉어진다. 이 대목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는 시구가 떠올랐다. ‘한 사람 화가 탄생에 참으로 많은 인연들이 함께 했구나.’ 그물코처럼 얽힌 종종 무진한 화업세계.

“아주 흔한 건데 사람들이 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보기를 들면 나뭇가지 끝에 잡자리가 앉았어요. 참 흔한 풍경인데 중국화 가운데 습자형식으로 그려진 게 딱 하나 있을 뿐, 동서양을 통 털어서 제가 처음이에요.” 추상작품을 하다 90년대 초 화풍을 바꾼 박화백 화백, 처음엔 까까머리 소년을 주로 그렸다. 그러다가 98년도쯤 불현듯 한복 입은 소녀를 그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화랑을 하는 친구가 와서 납작 들고 나간다. 뒤통수에다 대고 그 흔한 걸 왜 가져가느냐고 물었다. “그때다. 상서로운 사람이 어디 있나며 한번 찾아보래요. 찾아봤더니 한국화를 그리는 화가들 가운데도 한복을 그리는 화가가 없었어요. 민중미술 하는 화가들이 두루마기 입고 주먹 불끈 쥔 그림은 그렸지만, 한복 차마저고리 입은 그림은 없더라고요. 1960년대에 그린 그림들이 있을 뿐, 70년대 들어서면서 없애기 시작해요. 80년대 들어서서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한복 입은 소녀 그리기는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이 되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저에도 박 화백이 낳은 한복 입은 소녀가 고운 자태를 드러내며 손님을 맞고 있다.

- 찰나도 영원이고 영원도 영원

“70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 직지사사를 갔었어요. 말간 아침에 스님 한 분이 걸어가는데 골상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저거 한 번 만들어 봐야겠다하고는 바로 스케치하고 그 길로 올라와서 까까머리 조각을 몇 점을 했어요.” 그 스님이 시월초파일 키우던 난초를 밖에 내놓고 햇볕을 쬐게 했다. 그런데 그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 모처럼 절에 온 아이들이 꽃을 다 꺾어갔다. 초파일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와 그 광경을 본 스님은 “아, 내가 아직도 많이 모자라구나.” 하면서 어디론가 떠났단다. 꽃을 꺾어간 아이들에게 화는 커녕 내 정성이 모자라는구나 하는 마음을 내는 수행. 가슴 속까지 ‘화’ 해지는 맑은 소식이다.

그림을 지금처럼 바꾸면서 가장 먼저 그린 그림이 바로 까까머리 소년이었다. ‘93년도 작품 가운데 길상사 식당에 걸려 있는 머리 깎은 와상이 있어요. 부처님 열반상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그 그림을 그리고 한 해 짝 지나서 작업실에 스님 한 분이 찾아오



그림 속 새가 작업실에 있었다. 벽에 붙어있기도 했고 조각으로 만들어진 채 서 있기도 했다. 화가의 영혼 속에도 새가 있는 것 같았다. 화가는 참 좋겠다. 순수를 꿈꾸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새를 안고 사는 화가의 영혼이 좋았던 것 같다.

셨어요. 팸플릿에서 본 그 그림이 마음에 드는데 포스터가 없냐고 해서 드렸는데, 그 스님이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불상보다 이게 좋다고.” 그것이 인연이 됐을까? 박 화백은 몽골여행길, 그림 컨셉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궁리 끝에 떠오른 날발이 메디테이션(meditation), 명상이었다. “그 다음부터 전시회를 할 때마다 전체 주제를 ‘meditation’이라 붙이고 부제를 달기 시작했어요. 명상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찰나에도 될 수 있는 생각에 그렸어요. 그림 제목 가운데는 ‘정오의 명상’이 있어요. 정오라는 것은 한 꼭지점에 지나지 않잖아요? 또 ‘낮 꿈’이라는 건 낮에 잠만 조는 건데 그때도 명상이 되고 그러면 찰나도 찰나가 아닌 셈이죠.” 찰나도 놓치지 않고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이다. 길상사 관음상을 조각한 조각가 최종태 선생도 ‘찰나도 영원이고 영원도 영원이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술을 하는 분들 정신세계는 맥이 통하나다.

“최종태 선생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임강사셨

어요. 어느 날 그 분 연구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뚝 열려있었어요. 문 틈새로 보인 게 가녀린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여인상이었는데 눈부시게 고왔어요.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서 꼭 빼졌어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최종태 선생 수업을 듣고 싶어서 당시엔 전공이 다르던 학점인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4학년 때, 3학년 부조 시간에 가서 들었던다.

이 말씀을 듣다 문득 외람된 생각이 떠올랐다. 길상사 지장전을 지을 때 법정 스님은 본디 이층 높이 양식 건물을 지으라고 일렀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때 스님 말씀을 따라 건물을 승효상 같은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 짓고, 최종태 선생과 박화백 화백 같은 분들이 불상과 후불탱화를 현대 관점으로 해석해서 모셨더라면 어땠을까.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2

요시시게노 야스타네 (慶滋保胤:931~1002)

“여성 문인 후지와라(藤原)씨는 마음이 온화하고 순하며, 자비심이 매우 깊었다. 언제나 극락을 그리워해 염불을 놓지 않았다. 이윽고 만년에 이르러 말하기를 ‘음악이 멀리서 들려온다. 이것이 왕생의 길조인가’라고 했다. 그 다음 해에도 ‘음악이 점차 가까워진다’라고 했다. 다음 해에도 또한 ‘음악 소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워진다. 더구나 근일에는 진실 위에서 들려온다. 오늘이 야말로 왕생할 때구나’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몸에 고통이 없었다.”

요시시게노 야스타네(931(?)~ 1002)가 기록한 왕생집인 <일본왕생극락기>의 왕생담 중 하나이다. 상서로운 구름을 탄 아미타여래 협시인 관음보살과 세지보살

“여성 문인 후지와라(藤原)씨는 마음이 온화하고 순하며, 자비심이 매우 깊었다. 언제나 극락을 그리워해 염불을 놓지 않았다. 이윽고 만년에 이르러 말하기를 ‘음악이 멀리서 들려온다. 이것이 왕생의 길조인가’라고 했다. 그 다음 해에도 ‘음악이 점차 가까워진다’라고 했다. 다음 해에도 또한 ‘음악 소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워진다. 더구나 근일에는 진실 위에서 들려온다. 오늘이 야말로 왕생할 때구나’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몸에 고통이 없었다.”



아미타여래 내영도, 코토 지은원 소장

믿음이 임중에 가까워 올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왕생집은 중국 당나라 초기 가재(迦才의(정토론)에 20인의 왕생자에 대한 기록이 최적이다. 극락정토의 종류나 품 등을 정해 범부도 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과 실재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당 중기에는 독립된 왕생전으로 문적(文帛)과 소강(少康)이 편찬한 <서응전(瑞應傳)>이 나왔다. 10세기 후반 이러한 내용들을 섭렵한 야스타네는 일본 최초의 왕생집을 편찬한 것이다. 후에 이를 본으로 <속본조왕생전(續本朝往生傳)>이나 <습유왕생전(拾遺往生傳)>을 비롯한 여러 왕생집이 고대말기까지 양산돼 수백 명의 왕생자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 내용들

평생토록 정토왕생 발원 50대에 출가 45명 사례모아 일본 최초 왕생집 펴내

은 물론 그 외 여러 보살 및 천인 등을 거느리고 임중에 이른 중생을 극락정토로 인도하기 위해 오시는 내영(來迎)의 모습이 여기에서는 음악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대 헤이안 시대(794~1185) 중기부터 정토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내영사상이 의식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내영의 모습을 연기하는 영점 범요가 행해지고, 이를 그림으로 묘사한 내영도나 영점만다라가 유행해 정토교 미술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이 왕생담에는 당시 왕생정토하기를 바라는 신앙심이 간절하게 드러나고 있다. 요시시게노는 이처럼 왕생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 총 45편을 수집해 기록으로 남겼다. 예를 들면 음악이 임종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렸거나, 자색의 구름이 그 집을 에워싸거나, 이색의 향기가 방안 가득했다거나 하는 주위의 체험담도 왕생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법에 귀의해 평소에 염불을 열심히 외웠다는 점이다. 또한 관상염불과 구경염불의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방정토에 가고 싶다는

은 12세기 초 일본 최대의 설화집인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의 주요한 소재가 됐다. 겐신(兼信)의 <왕생요집>이 천태정토교의 입장에서 바른 염불생활을 위한 이론적인 지침서였다고 한다면, <일본왕생극락기>는 진실한 염불신앙인들의 완결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살아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스타네는 원래 하급관료였지만 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불법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30세에 이르러 승려들과 함께 권학회(勸學會)를 결성, 20여 년 동안 염불은 물론 <법화경>을 논하고 시문을 지어 나누었다. 986년 50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겐신이 주도한 염불결사인 25삼매회의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불심이 깊어짐에 따라 마침내 출가하여 적심(寂心)으로 칭해졌다.

왕생집을 편찬하는 이유는 후대에 이 기록을 보고 왕생극락에 의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야스타네의 일생은 찬란한 중세 정토세계의 흥기를 위한 유투를 넓혀가는 와중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상용시안특허의가수
 ■ 제1공표: 순국기념일(법륜대)
 ■ 제2공표: 대량인간 상감청자
 ■ 높이: 110cm
 ■ 몸통부: 45cm
 ■ 밑판부: 60cm
 ■ 무게: 72kg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관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정월, 봄, 여름, 동지)로
 나누어 저價 하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산)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1-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